-국어

기출분석 매뉴얼

ㄹㅇㅍㅌ시리즈

ㄹㅇㅍㅌ시리즈

기출분석 매뉴얼

국어

2021학년도 저자의 말

신입 저자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신 여러 독자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따라와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

앞으로 2021학년도에도 열심히하는 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작년에 느꼈던 여러 부족한 부분을 모두 개선하고,

제 모든 능력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나은 교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ㄹㅇㅍㅌ2021 커리큘럼

종이책 시리즈

기마켓
〈기출을 사다〉
인문/사회/과학/기술/예술

이배이
〈이비에스 배경지식의 이해〉
수특인사예/수특과기융/수완

전자책 시리즈

기출분석 매뉴얼
〈기출분석 가이드라인〉
국어/수학/탐구

재종생활 매뉴얼
〈재종 생활패턴 가이드라인〉

공부자료 매뉴얼
〈공부자료 사용법 가이드라인〉
커리큘럼 상담 자료

프롤로그

ㄹㅇ프ㅌ시리즈는 지금까지 해온것처럼, 방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본 교재인 기출 분석 매뉴얼도 동일합니다.
기출 분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기출분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시작한 교재입니다.

수능은 결국 스스로의 싸움입니다. 누군가가 쉬운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점수는 쉽게 오르겠죠. 하지만, 과연 그 실력이 '진짜'실력은 아닙니다. '기출분석매뉴얼'은 물고기(방법)를 주는 것이 아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깨우치게 만들어주는 교재입니다.
누군가는 편한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따라하도록 제시하는 교재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효과는 있지만, 수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교재에서 제시한 방법을 100% 구현할 수 있어야 하겠죠.
결국, 마지막에는 스스로 끊임없이 연습하고 적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커뮤니티를 보면, '기출분석'에 대해 질문하는 글이 많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커리큘럼 상담/공개 QnA를 진행하다보면, 기출분석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묻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그런 질문을 정리하고, 그 해답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고(영재고)졸업생이었던 저 역시, 완전 노베이스였습니다. 5등급에서 시작했던 제 국어 점수는, 이후 여러번의 삽질을 거치고 백분위 100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저만의 체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정수를 담은 것이 본 교재 '기출분석매뉴얼'입니다.

ㄹㅇㅍㅌ시리즈

기출분석 매뉴얼

국어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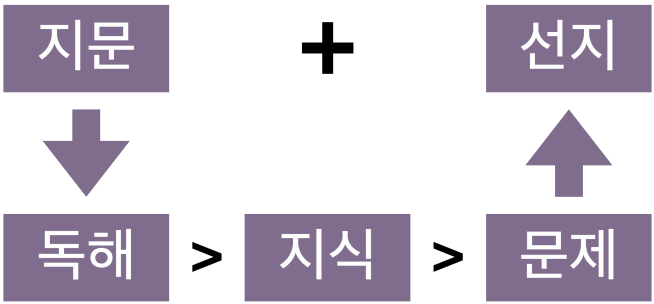
01장 - - - - - 수능 국어의 구조 08p
02장 - - - - - 화작/언 분석법 11p
03장 - - - - - 지문 분석법 12p
04장 - - - - - 문제 분석법 14p
05장 - - - - - 선지 분석법 16p
06장 - - - - - 지문-문제 유기성 18p
07장 - - - - - 지문에서 문제로 20p
08장 - - - - - 문제에서 지문으로 22p
09장 - - - - - 기출분석 후에는… 24p
10장 - - - - - 마치며(QnA) 27p

1장

한 세트의 구성

❖

국어 시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표현가능하겠죠.



1단계: 지문을 독해하는 것은 단순히 읽기

2단계: 독해로 지식을 만들기

3단계: 지식을 통해 문제를 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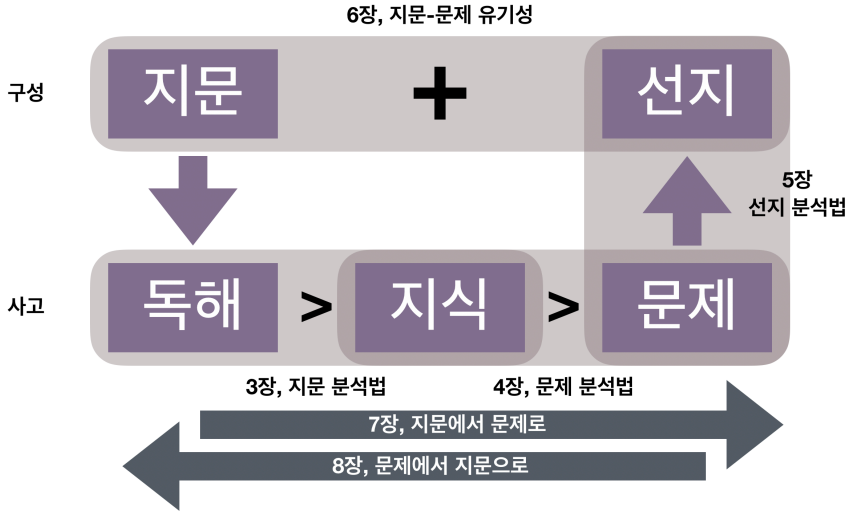
4단계: 문제의 선지가 적절한지/아닌지 확인하기

국어 시험은 이처럼 진행이 되겠죠. 여기서, 기출분석을 한다는 것은, 각 단계를 평가원에 '최적화'시킨다는 말입니다.

❖

앞으로, 화작언을 다룬 2장을 제외한 3장부터 위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각 장의 점선-네모 안에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비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따로 표기했습니다.

전체 흐름과 각 '장'의 관계를 따지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ㄹㅇㅍㅌ시리즈

기출분석 매뉴얼

국어

2장

화작언 분석법

미니-비문학

- ❖ 출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 ❖ 이 문제는 어디를 찾아야 하는가?

1장에서 제시한 3개의 단계는 거의 모든 문제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화법, 작문, 그리고 언어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각 단계를 넘어가며 일어나는 사고의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비문학이나 문학은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 근거를 생각하거나, 계산을 해야 하는 등,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흘러갈 때 조금 번거롭게 합니다. 하지만, 화작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화작언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를 빠르게 넘어가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화법, 작문, 그리고 언어는 모두 매우 규칙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문제의 구성이 매우 규칙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의 패턴을 익히면, 지문을 읽으며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문에서는 '가'나 '[A]와 같은 표지로 이런 부분을 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뜬금없이 전문가를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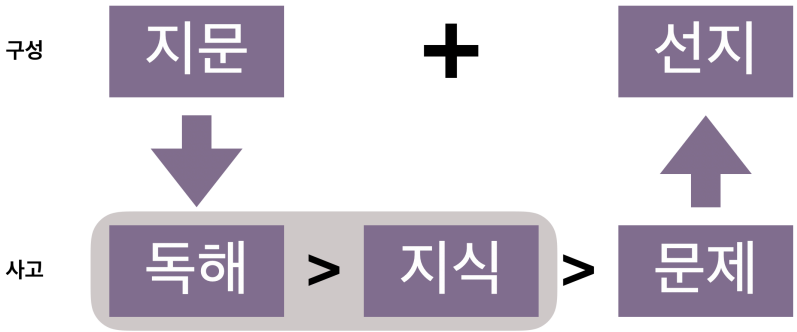
물론, 더욱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에서 다루는 '지문 분석법'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지문 분석법

지문 안에 다 답이 있다.

❖



3장, 지문 분석법

❖ 지문의 주제는 무엇인가?
❖ 1문단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1문단'만'보고 다른 지문 소재를 예상할 수 있을까?
❖ 각 단락의 주제는 무엇인가?
❖ 단락이 기존 내용과 어떤 연관된 내용을 갖고 넘어가는가?
❖ 단락간 어떤 내용이 연관이 있는가?
❖ 지문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는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있는가?

지문 안에 다 답이 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초등학생이어도, 수능 문제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고, 끈기만 있다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것이죠.물론, 개념어를 학습해야 하는 문학이랑은 다르지만, 비문학에서만큼은 모든 답이 지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한된 시간 안에 지식으로 처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문을 훨씬 체계적으로 본인의 지식으로 만들면 훨씬 수월하겠죠. 마치 두뇌에 '입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문을 독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인강 강사마다 저마다 다른 독해 방법이 있고, 강조하는 포인트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어느 포인트도 무시하면 안됩니다. 위의 체크리스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 (문학) 작가가 제시하는 주제와 그의 정신은 무엇인가?
❖ (문학) 작가가 사용한 특이한 표현은 무엇인가?
❖ (문학) 등장하는 인물간의 관계와 개개인의 생각은 무엇인가?

물론, 문학은 다르겠죠. 문학지문에서 얻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주제'와 '표현'입니다. 문학은 모두 특정 '생각'을 갖고 창작한 작품입니다. 작가의 그 생각을 알아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표현'입니다. 생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각 문단에 대한 내용보다도, 저런 작가의 생각과 이념을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가다, 지문을 읽다가 텍스트'만'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앞 문단/문장과의 상호작용을 생각하며 읽으면 어느정도 해결될 겁니다.

❖

비문학 체크리스트

- 지문의 주제는 무엇인가?
- 1문단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1문단'만'보고 다른 지문 소재를 예상할 수 있을까?
- 각 단락의 주제는 무엇인가?
- 단락이 기존 내용과 어떤 연관된 내용을 갖고 넘어가는가?
- 단락간 어떤 내용이 연관이 있는가?
- 지문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는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있는가
- 지문의 주제/내용/소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어느 문단을 참고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왜 어려웠는가?
- '두번 틀린 선지'인가?
- 이 선지는 왜 틀렸는가?
- 이 선지는 어떻게 설계 되었는가?
- 지문의 어느 부분이 문제로 출제되었는가?
- 각 선지의 근거를 반드시 찾아보기.
- 3, 4, 5장에서 체크한 내용을 이어서 체크해보기
- 거시적인 분석과, 미시적인 분석을 동시에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 정확하게 어느 '표현'이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파악하도록 하자.
- 그리고, 지문을 읽으며 문제를 '예상'하는 연습을 하자.
- 한번 동일 지문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출제하는 연습을 해 보자.
-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어보기.
- 문제를 '정독'하지 말고, 훑어보는 정도로 끝내기
- 수동적인 찾아 읽기가 아닌, 능동적인 읽기로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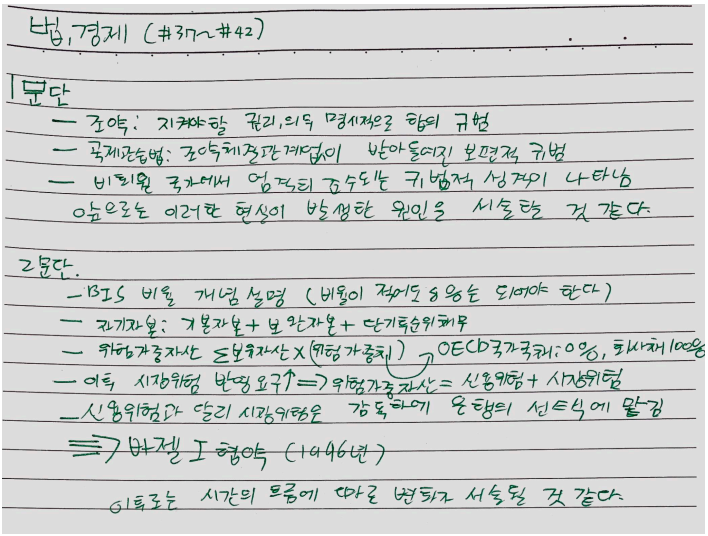
예시1-2019 수능, 지문 분석법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공)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차)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불필요한 문장은 없다 – 돌려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 소개)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Link).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일반적으로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특수한 경우)//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혹시라도 너무 어렵거나 난해한 지문이 있다면, 이렇게 따로 종이에 요약을 적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저자 정보

인서울 의과대학 재학 중
수도권 과학고 졸업
전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2020학년도 ㄹㅇㅍㅌ시리즈
2021학년도 ㄹㅇㅍㅌ시리즈